

독일의 연방교육지원법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정수정 | 독일 기센대학교 교육학 연구소 연구원

I 들어가며

교육은 한 사회 구성원의 자립적 삶과 성공적 사회 참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교육을 위한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있어야 한다. 미래 성공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은 삶의 필수적 단계이며 이 시기 학생은 학업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어 자립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모, 사회, 국가의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독일은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원하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연방교육지원법을 통해 교육기간 교육과 생활전반을 위한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연방교육지원법의 발전상황, 내용 및 현황,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분석해보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연방교육지원법의 개요 및 발전 상황¹⁾

교육 개별 지원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연방교육지원법- 줄임말 바펙(BAföG)²⁾ 이하 바펙으로 표기)³⁾은 독일 정부가 학생과 대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가정형편과 필요를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교육/생활지원금을 규정하는 법이다. 바펙은 1957년부터 실시된 능력에 따라 선발하여 지원하는 우수 대학생 지원정책을 개선한 것으로 1971년

1 Deutsches Studentenwerk. Studienfinanzierung. Geschichte und Statistik zum BAföG. <https://www.studentenwerke.de/de/node/1631> (2019.04.11. 검색) 참조.

2 일반적으로 독일인은 연방교육지원법의 줄임말인 바펙을 법으로 이해하기보다 학생과 대학생의 교육을 위한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바펙은 학생과 대학생 교육을 위한 독일의 교육/생활비 지원금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바펙을 연방교육지원법과 연방교육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금의 명칭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Vollzitat: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7. Dezember 2010 (BGBl. I S. 1952; 2012 I S. 197), das zuletz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8. April 2019 (BGBl. I S. 418) geändert worden ist".

영재지원과 관계없이 교육을 위해 개별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시기 바팩은 학생, 대학생을 일 년간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장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3년부터는 학생은 무상지원, 대학생은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지원하였다. 1990년에는 학생 가운데 지원 대상을 주로 직업학교 학생으로 하고 대학생 지원의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무이자 대출형식으로 지원하도록 개혁하였다. 무상지원금 외 대출금 합계는 10,000유로로 한계를 정하였고 소득에 따라 바팩 정규지원금에 계산되지 않는 추가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8년 독일정부는 이주민 통합을 위해 바팩을 개정하였는데 이전에는 독일국적이거나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바팩의 혜택을 주었으나 2008년부터는 외국인이라도 독일에 영주할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바팩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화 경향에 따라 유럽연합이나 스위스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바팩을 지원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0년에는 바팩 지원 대상 석사과정 입학생의 최대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상향조정하였다.

바팩을 위한 재정은 2015년 바팩 25차 개정 전까지 연방이 65%, 주가 35% 부담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교육자치권을 가진 주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여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2017년 연방정부의 바팩 재정은 29억 유로이다.⁴⁾

III 바팩의 구체적 내용

바팩의 목적은 교육기회균등의 실현으로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출신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⁵⁾ 바팩은 기본원칙, 지원 교육 분야,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개별 전제조건, 지원 내용과 운영, 소득과 재산 계산법, 교육지원을 위한 선지급금과 이행기 과정, 조직, 절차를 규정하는 전체 제11장 6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바팩 지원이 가능한 교육기관

바팩은 중등2단계 학생,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 자신의 교육과 연결된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바팩은 사립 대학교를 제외한 공교육 기관과 인가받은 대안학교에서 교육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2조 교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제3조 원격 수업에 따라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이 지원 받을 수 있다.⁶⁾

4 Statistisches Bundesamt. 2018.08.02.

5 §1 BAföG.

6 §§ 2 Abs. 1~3, 3. BAföG.

제2조 교육기관 제1~3항에 따라 학생이 바뉘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1항:

1. 일반 중등학교, 직업학교, 직업기초교육을 시행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전문학교 또는 전문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2조 1a항⁷⁾을 충족하는 경우
2.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이 최소 2년간으로 직업자격 취득졸업이 가능한 전문 학교 또는 전문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전문학교 또는 전문 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야간 하우푸트슐레⁸⁾, 직업기초학교, 야간 레알슐레, 야간 김나지움과 콜렉(Kolleg)
5. 고등 전문학교와 아카데미
6. 대학교

제2항: 대안학교와 사립 대학교 가운데 1항이 규정하는 교육기관과 동일하다고 관할 주 관청이 인정한 교육 기관

제3항: 연방 교육과 연구부는 연방의회 동의 없이 법 규정에 따라 다음의 교육기관이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교육기관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학 중인 학생에게 바뉘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교육기관
2. 실험학교로 운영 중인 교육기관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육기관과 3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이와 관련하여 실습을 할 경우에도 바뉘을 지원한다. 바뉘은 최소 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교육받거나 직업교육생의 경우 전체 직업교육기간에 참여할 때 지원한다. 언급한 사항이 충족되어도 다음 경우는 바뉘을 받을 수 없다.⁹⁾

7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며 부모의 거주지 근교에 적합한 교육기관이 없을 경우, 독립적인 자신의 가정이 있고 결혼했거나 파트너와 동거하거나 하였을 경우와 독립적인 가정이 있고 최소 1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8 독일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졸업 후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하우푸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의 3단계로 분리된 중등학교로 진학한다. 하우푸트슐레는 중등학교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학교로 9학년까지 있다. 레알슐레는 10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중간 수준의 중등학교이다. 김나지움은 중등 1,2 단계 교육과정을 모두 제공하는 인문계 중등학교로 중등학교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다. 김나지움 졸업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독일은 조기 분리된 이러한 중등교육과정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아 현재는 주에 따라 김나지움을 제외하고 하우푸트슐레와 레알슐레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복합/통합 중등학교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하우푸트슐레와 레알슐레, 김나지움 전체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종합학교(Gesamtschule)도 운영되고 있다.

9 §2 Abs. 6 BAföG.

1. 사회법 III¹⁰⁾ 근로지원에 따라 직업적 계속교육을 위해 생계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와 사회법 II¹¹⁾ 구직자 기본보장에 따라 직업적 계속교육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2. 영재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3. 시보나 이와 유사한 근로를 하는 공기관 근로자로 공적 지원금을 받을 경우
4. 형사 집행법¹²⁾ 제44조와 제176조 제4항에 따라 직업교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감자

2. 외국에서 학업을 위한 지원

지속적인 거주자가 독일일 때 김나지움 오버슈투페¹³⁾와 전문상급학교를 제외하고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일정기간을 외국에서의 하도록 규정하였거나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이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는 바פק이 지원된다. 또한 독일과 협력하여 통일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환학생으로 교육받을 경우도 바פק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교육기관은 김나지움 10학년 또는 11학년이상, 직업전문학교, 전문학교, 전문상급학교, 고등 전문학교, 아카데미, 대학교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독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유럽연합국 또는 스위스에서 교육받을 때도 바פק을 지원한다.¹⁴⁾ 외국에서의 교육을 위한 바פק은 최대 1년까지이며 바פ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정규교육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¹⁵⁾

독일 기본법에 따른 독일국적자이지만 외국에 지속적인 거주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거주지 인근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바פק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바פק 지원 종류와 기간, 소득과 재산 계산(평가)은 거주국의 상황을 고려한다.¹⁶⁾

3. 바פק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

바פק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일반 중등학교와 최소 3년 과정의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해당 교육과정 졸업과 최대 대학 졸업 때까지 바פק을 받을 수 있다.¹⁷⁾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까지 바פק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사 졸업 후 석사 입학이 예정되어 있지만 확실한 입학이 지연되는 학생도 최대 1년의 지연기간 바פק을 받을 수 있다.

10 Sozialgesetzbuch (SGB) Drittes Buch (III) – Arbeitsförderung

11 Sozialgesetzbuch (SGB) Zweites Buch (II) –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12 Strafvollzugsgesetz

13 Oberstufe, 대학입학 자격시험이자 김나지움 졸업시험인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중등 2단계 교육과정

14 §5 Abs. 1, 2, 4 BAföG.

15 §5a BAföG.

16 §6 BAföG.

17 §7 Abs. 1 BAföG.

4. 바뎁 청구를 위한 개인 전제조건

독일인, 유럽연합시민, 특정 조건 하의 외국인도 바뎁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 기본법에 따른 독일인, 유럽연합임의이주권법¹⁸⁾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유럽연합시민, 체류법에 따라 독일 영주권 또는 유럽연합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독일에 지속해서 거주하는 난민, 고국이 없는 외국인, 체류법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 지속해서 독일에서 거주할 것이라 판단되는 자와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바뎁을 지원한다. 제네바협약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와 망명으로 인정받은 자도 바뎁을 받을 수 있다. 바뎁을 받기 위해 성적이 우수할 필요는 없으며 바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입학이 가능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대학생이 바뎁을 지원 받으려면 학사과정은 30세, 석사과정은 35세 이전에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¹⁹⁾

5. 지원금

가. 지원범위

바뎁은 교육비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중등)학생 바뎁은 전체 무상이며 대학생 바뎁의 절반은 무상, 절반은 무이자 대출이다. 지원금은 바뎁을 받는 자의 참여 교육 종류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바뎁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 형제/자매의 수, 부모와 동거여부, 건강보험을 스스로 가입해야 할 경우, 바뎁을 받는 당사자의 재산과 기혼자이거나 동거할 경우 상대방의 수입과 자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부모의 소득은 부모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또는 실제로 독일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바뎁을 받는 학생이 야간 김나지움을 다니거나 교육시작 시기가 30세를 초과한 경우, 18세 이후 5년간 근로하였거나 바뎁의 지원을 받을 교육 시작 전 최소 3년간의 직업자격 교육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일한 기간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²⁰⁾

나. 대상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 지원금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업전문학교,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31유로를 받으며,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야간 하우푸트슐레, 야간 레알슐레, 직업기초학교, 전문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월 418유로 받는다. 이 때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 587유로를 지원받는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 가운데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일반 중등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전문학교, 전문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바뎁은 504유로이다. 대학생은 월 399유로와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주거비로 250유로를 받으며 부모와 동거할 경우 52유로를 지원받는다. 이외 스스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을 지급해야 할 경우 각각 71유로

18 Freizügigkeitsgesetzes/EU

19 §8-10 BAföG.

20 §11 BAföG.

와 15유로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²¹⁾ 이해를 돕기 위해 연방 교육과 연구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1 상황에 따른 구체적 지원금

교육기관	부모와 거주	건강보험/ 간병보험 비용 지원	부모와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건강/간병 보험 포함 최대 지원금
일반 중등학교와 직업전문학교 10학년부터/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전문상급학교	지원받지 못함	지원받지 못함	504€	590€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업자격 취득이 가능한 최소 2년 이상 과정의 직업전문학교와 전문학교	231€	317€	504€	590€
야간 하우푸트슐레 및 레알슐레, 직업교육 졸업이 전제조건인 전문상급학교	418€	504€	587€	673€
직업교육 졸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전문학교, 야간 김나지움, 콜렉	424€	510€	622€	708€
고등 전문학교, 아카데미, 대학교	451€	537€	649€	735€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Welche Bedarfssätze sieht das BAföG vor? <https://www.bafög.de/de/welche-bedarfssaetze-sieht-das-bafoeg-vor-375.php>

다. 자녀 돌봄 비용

바펙 지원 대상 교육생이 최소 1명의 만 10세 이하 자녀와 함께 살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매달 한 자녀 당 130 유로를 추가 지원하며 자녀 양육을 위한 추가 지원금은 상환이 필요 없는 무상지원금이다. 부모 모두 바펙을 받을 때는 한편에만 자녀 돌봄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누가 받을 지에 대해 부부 또는 파트너 간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²²⁾ 임신과 자녀 양육으로 학업이 지연되면 바펙 최대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의 바펙도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지원금이다.

21 §§ 12~13a BAföG.

22 §14a abs. 1 BAföG.

라. 지원기간

바뎁은 신청을 통해 지급하며 허가 받은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첫 달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학을 포함하여 학생은 교육기간 전체, 대학생은 대학법이 정한 각 전공과정의 정규교육기간 지원된다. 바뎁은 원칙적으로 목적이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한 교육의 실행을 토대로 지원하므로 대학 학과를 입학 4학기 후 전과하거나 대학을 정규 학기 내 졸업하지 못할 경우, 직업교육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바뎁 지원에 제한이 많다. 그러므로 바뎁을 받는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성과를 바뎁을 관리하는 기관에 지속해서 증명하여야 한다.²³⁾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과정의 최대 지원기간은 12개월이다. 바뎁의 최대 지원기간은 법이 정한 피치 못할 경우 즉, 첫째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둘째 법이나 대학 또는 주 정부에서 규정한 대학생 자치기구와 대학생 후생복지기구 참여활동으로 학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셋째 처음 응시한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경우²⁴⁾, 넷째 장애, 임신, 10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학업이 지연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여 연장해 준다.²⁵⁾ 외국에서 학업을 위한 바뎁은 최대 1년이다. 그러나 독일과 협력하여 통일된 교육과정을 번갈아 운영하는 외국 교육기관에서의 유학 및 유럽 연합 및 스위스에서 유학은 외국 유학을 위한 바뎁 지원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²⁶⁾

마. 대출금의 상환

학생 바뎁은 전체 무상이며 대학생 바뎁의 절반은 무상, 절반은 무이자 대출이며 대출금의 최대 상환액은 1만 유로이다.²⁷⁾ 바뎁 중 대출금은 일반적인 경우 바뎁 지원 종료 5년 후부터 최소 월 105유로를 20년 내에 상환하면 된다.²⁸⁾ 대출금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²⁹⁾ 종료 5년 이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상환은 자신만을 위한(1인) 소득이 월 1,145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 받을 수 있고 면제 기준액은 배우자(파트너),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570유로, 520유로가 높아진다.³⁰⁾ 바뎁 가운데 무이자 대출금은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상환할 능력이 될 때 국가에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47 BAföG.

24 독일 대학의 모든 학과 졸업시험은 2회 응시할 수 있다.

25 §15 BAföG.

26 §16 BAföG.

27 §17 BAföG.

28 §18 abs. 3 BAföG.

29 §18 abs. 5b BAföG.

30 §18a abs. 1 BAföG.

IV 현황 및 이슈

2017년 전체 독일 대학생 280만 명 가운데 약 20%가량인 782,000명이 바팩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생은 225,000명, 대학생은 557,000명이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은 바팩 지원금을 최대 월 735유로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바팩을 받는 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최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월 평균 바팩 지원금은 학생은 456유로, 대학생은 499유로이다.³¹⁾

지속된 독일의 경기호황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여 최근 바팩의 혜택을 받는 학생과 대학생의 수가 감소하였다. 바팩은 가정의 소득을 토대로 지원이 결정되고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특히 바팩 지원의 경계에 있는 가정의 자녀가 근소한 차이로 바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중산층 가정의 자녀 교육 어려움이 커졌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는 26차 바팩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 내각은 지난 2019년 1월 30일 26차 바팩 개정안을 결정하였으며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9년 8월 1일 효력 발생을 계획하고 있다. 26차 바팩 개정을 통해 독일 정부는 물가 및 주거비 상승을 더욱 고려하여 주거지원비를 현재 250유로에서 30%증가하여 325유로 지급하고 전체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7%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바팩 최대지원금은 2020년부터 735유로에서 17% 증가한 861유로가 된다. 특히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 바팩 지원금 산정에 토대가 되는 가정 소득의 비교세율을 2019년에서 2021년 단계적으로 17%로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바팩 지원금 가운데 무이자 대출금은 최대 매달 130유로를 77개월 상환하면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졸업 후 소득이 적어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매월 130유로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하여도 77개월 후에는 나머지 금액을 면제하고 자신의 노력에도 바팩 지원 종료 후 대출금을 20년 내 77번 상환 하지 못한 경우도 나머지 대출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³²⁾

V 마치며

독일은 출신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모든 독일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무상교육과 함께 연방교육지원법을 토대로 교육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기간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독일에 영주할 것이라 기대되는 외국인 및 난민을 대상으로도 바팩의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업과 육아 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비용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회 향상을 위한 바팩의 혜택이 사회인이 된 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바팩의 절반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절반의 무이자 대출금은 최대상환금액의 제한을 두고 형편이 될 때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방교육지원법이 철저하게 교육 지원을 위해 작동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독일 정부가 바팩을 국가 지속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로 보고 있으며 지금 교육에 투

31 Statistisches Bundesamt. 2018.08.02.

32 Bundesrat. 2019.02.01.

자하는 것이 미래 사회적 지출(복지지출)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질 높은 전문 인력의 필요를 인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 중 낮은 고등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바뉘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바뉘의 주정부 부담금을 연방정부가 전체 부담하면서 독일 교육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독일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지난 2005년 36.1%에서 2017년 51.8%로 크게 증가하였다.³³⁾

그러나 바뉘가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회 균등의 실현은 학생들이 학업기간 부분제 직업을 겸하지 않고도 학업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918유로인 반면 현재 바뉘 최대 지원금은 월 735유로로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대학생의 61%가 직업생활을 겸하고 있다.³⁴⁾ 이에 독일 정부는 현실을 좀 더 반영한 26차 바뉘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 방위적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소위 사회하위계층(저소득층, 이주민 가정,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낮은 대학진학율과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의 유동성이 낮은 것은 독일 교육에도 사회계층 이동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상당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독일과 비교해 볼 때 독일은 연방교육지원법이라는 견고한 법체계를 두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지원금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넓고 대출금의 상환 방법이 혜택을 받은 학생의 부담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교육지원법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학생 교육기회 향상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의 개선을 고려해 볼 만 하다. 그러나 독일이 오랜 전통의 사회복지체계 하에서 교육복지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독일 학자금 지원 법 및 제도를 우리나라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독일 사회와 법,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33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019.02.

34 spiegel.de 2018.10.08.

참고문헌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BMBF)(2018). Das BAföG. Kompaktinformationen zur Ausbildungsförderung. Berlin.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BMBF)(2019.02). Tabelle 1.9.4 Studienanfänger/-innen absolut und Anteil am Altersjahrgang in Deutschland nach Fächergruppen und Studienbereichen (in internationaler Abgrenzung).

<http://www.datenportal.bmbf.de/portal/de/Tabelle-1.9.4.html>

Bundesrat(2019.02.01.). Gesetzentwurf der Bundesregierung. Entwurf eines Sechszwanzigsten Gesetzes zur Änderung des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es (26. BAföGÄndG).

<https://www.bmbf.de/files/26.%20BAf%c3%b6G%c3%84ndG%20Regierungsentwurf.pdf>

Deutscher Bundestag(2017). Einundzwanzigster Bericht nach § 35 des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es zur Überprüfung der Bedarfssätze, Freibeträge sowie Vomhundertsätze und Höchstbeträge nach § 21 Absatz 2. Drucksache 19/275. 14.12.2017.

Ein Service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sowie des Bundesamts für Justiz.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 BAföG).

https://www.gesetze-im-internet.de/baf_g/BAf%C3%B6G.pdf

사이트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Das BAföG.

<https://www.bafög.de/index.php> 2019.04.11. 검색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Welche Bedarfssätze sieht das BAföG vor?

<https://www.bafög.de/de/welche-bedarfssaetze-sieht-das-bafog-vor--375.php>
2019.04.11./25. 검색

Deutsches Studentenwerk. Studienfinanzierung. Geschichte und Statistik zum BAföG.

<https://www.studentenwerke.de/de/node/1631>. 2019.04.11. 검색

spiegel.de(2018.10.08.). Kosten im Studium. Studenten leben im Schnitt von 918 Euro im Monat.

<https://www.spiegel.de/lebenundlernen/uni/studenten-leben-von-918-euro-im-monat-a-1232083.html> 2019.4.10. 검색

보도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2018.08.02.). BAföG-Statistik 2017: 782 000 Geförderte in Deutschland. Pressemitteilung Nr. 284 vom 2. August 201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18/08/PD18_284_214.html